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중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분석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지도교수 김용일



2012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 평 옥

本 論 文 을 池 平 玉 의 教 育 行 政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認 准 함 .

위원장 김 경 화 인
위 원 김 용 일 인
위 원 김 태 형 인



2012년 1월 25일

한 국 해 양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4
가. 용어의 정의	4
나.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변혁적 리더십	5
가. 리더십의 개념과 변혁적 리더십 대두 배경	5
나.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과 구성 요인	6
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11
2. 자기효능감	12
가. 자기효능감의 정의	12
나. 자기효능감의 근원	12
다. 자기효능감의 효과	14
3. 선행연구 분석	14
가.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5
나.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7
III. 연구 방법	19
1. 연구대상 및 절차	19
2.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별 특성	19
3. 측정도구	21

가.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측정 검사도구	22
나. 학생의 자기효능감 측정 검사도구	23
4. 자료분석	24
IV. 연구 결과	25
1.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분석	25
가.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분석	25
나.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분석	27
2.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분석	40
가.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분석	41
나.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분석	43
3.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분석 ..	55
V. 결론	58
1. 요약	58
2. 결론 및 제언	62
참고 문헌	65
설문지	68

표 목 차

<표 1> 교환적 리더와 변혁적 리더의 특성 비교	7
<표 2> 변혁적 리더십 구성요인 종합표	10
<표 3> 학생의 배경변인별 특성	20
<표 4>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측정 도구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22
<표 5> 학생의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23
<표 6>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분석 결과	25
<표 7>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중 카리스마에 대한 분석 결과	26
<표 8>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중 개별적 배려에 대한 분석 결과	26
<표 9>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중 지적 자극에 대한 분석 결과	27
<표 10>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중 결속 촉진에 대한 분석 결과	27
<표 11> 학생 성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28
<표 12> 학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29
<표 13> 성적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30
<표 14>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31
<표 15> 교우관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33
<표 16>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	34
<표 17> 집안분위기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35
<표 18> 학교 급지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37
<표 19>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38
<표 20>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39
<표 21> 학생의 자기효능감 분석 결과	41
<표 22> 학생의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대한 분석 결과	41

<표 23> 학생의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	42
<표 24> 학생의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에 대한 분석 결과	42
<표 25> 학생 성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43
<표 26> 학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44
<표 27> 성적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45
<표 28>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46
<표 29> 교우관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48
<표 30>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50
<표 31> 집안분위기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51
<표 32> 학교 급지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52
<표 33>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53
<표 34>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54
<표 35>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요인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요인 간의 상관계 분석	56
<표 36>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계 분석	56

초 록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중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분석

교육행정전공 지평옥

지도교수 김용일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담임교사의 리더십 개발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가?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내의 남녀 공학 중학교를 가, 나, 다 급지별로 1개교씩, 총 3개 학교 학생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초기 배부한 900부 중 870부를 회수, 841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검사도구는 권인탁(1994)이 제작한 “변혁적 지도성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 TSLQ(Transformational School leadership Questionnaire)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했던 김경희(2007)와 한은미(2009)의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계수는 .975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측정 설문지는 카리스마, 개인적 배려, 지적 자

극, 결속 촉진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의 자기효능감 측정 검사도구는 김아영(1996)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886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측정 설문지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WI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t-검증, 분산분석, 샤페 검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분석에 대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은 보통 이상이며, 배경 변인 중 학년, 집안분위기, 학교급지, 담임교사의 성별, 담임교사의 교직 경력에 따라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이 가장 낮은 집단은 2학년, ‘무관심한 가정’ 학생집단이며, 남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여자 담임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5년 이상~10년 미만 경력의 교사 집단이 가장 높은 변혁적 리더십을 나타냈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수준은 보통 이상이며, 학생의 배경 변인 중 성별, 성적, 자기주도 학습 시간, 교우관계, 부모와의 동거 여부, 집안분위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생의 배경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자기주도 학습시간이 긴 학생, 친구 수가 많은 학생,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 집안 분위기가 민주적인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친구가 없는 경우와 어머니와 거주하는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 효능감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과정과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분석이 학생의 지각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설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학생의 지각과 교사의 지각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6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하려면 담임교사와 학생이 보다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된 학년 말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설문대상 교사 수, 남녀구성비, 연령, 경력 등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문 조사 대상을 선정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이다. 엘빈 토플러는 한 일간지와와의 대답에서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속에서 국가적 부(富)를 창출할 원동력은 ‘교육’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창조적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한국경제신문). 이렇듯 국가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열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에게 교사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성적으로 편성된 학급 학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적, 태도, 교우 관계, 학습 분위기 등에서 많은 변화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와 차이가 나타나는 데는 다른 요인도 작용하겠지만, 조례, 종례, 청소, 자율학습 시간 등을 학생과 함께 하는 담임교사의 리더십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는 아무리 좋은 교육 목표가 제시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가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에 따라 교육 과정이나 산출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돈희, 1998).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장, 교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학교 단위 리더십 연구도 학급의 교육리더인 담임교사 리더십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집단 따돌림과 집단 폭행 문제 등 학교 내·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쉽게 찾기는 어렵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는 교사의 역할 특히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양식도 많이 변화하였다. 때문에 잘못에 대한 처벌과 규제, 지시, 군림하는 전통적 리더십으로는 학생 지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를 통해 성장욕구를 자극하고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켜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담임교사

의 역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3월 초에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함께 하는 개학식과 입학식 자리에서 학급담임과 교과담당교사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때 담임교사가 남교사이거나 젊을 경우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담임교사가 남자이거나 젊을수록 자신이나 자녀에게 교육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감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또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습이나 모든 일에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여 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사고와 행동, 스트레스와 강박관념 극복에 영향을 주고, 꾸준히 노력하는 힘의 원천이 되어 다양한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롤 모델의 성취모습 관찰을 통한 대리경험, 칭찬과 격려를 통한 언어적 설득, 정서적 안정 등을 통해 높일 수 있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칭찬과 격려를 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을 신장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이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롤 모델이 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과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박수소리 차이만큼 교사 성별에 따라 또는 교직 경력에 따라 담임교사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을까?’, ‘교사의 리더십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다면 어떤 요인 간에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라는 궁금증은 담임교사의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을 교사 리더십에 접목시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학생의 지각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 분석을 통해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을 파악하고, 중학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중학

생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담임교사의 리더십 개발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1.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어떠한가?

- 가)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은 어떠한가?
- 나)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중학생의 배경 변인(성별, 학년, 성적, 자기주도 학습 시간, 교우관계-비밀을 나눌 친구 수, 부모와 동거 여부, 집안 분위기, 학교급지, 담임교사의 성별, 교직 경력)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2.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가?

- 가)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수준은 어떠한가?
- 나)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은 중학생의 배경 변인(성별, 학년, 성적, 자기주도 학습 시간, 교우관계-비밀을 나눌 친구 수, 부모와 동거 여부, 집안 분위기, 학교급지, 담임교사의 성별, 교직 경력)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3.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가?

- 가)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하위요인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 나)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가. 용어의 정의

1)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Teac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란, 학생의 존경과 신뢰에 기반한 카리스마를 가진 담임교사가 학생의 결속 촉진 및 개별적 배려를 통해 학생의 성취 욕구와 지적 능력을 자극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학생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이다.

본 연구에서는 권인탁(1994)의 질문지에 근거하여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요인으로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 을 사용하였다.

2) 학생의 자기효능감(students'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묘사하는 용어로서 구체적인 자신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아영 외(1996)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에 근거하여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자신감’ , ‘자기조절효능감’ , ‘과제난이도’ 를 사용하였다.

나.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중학교 학생으로 국한하여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Likert 척도에 의한 응답만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인이나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이해하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은 학생들의 지각에만 근거하여 조사된 내용이므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변혁적 리더십

가. 리더십의 개념과 변혁적 리더십 대두 배경

리더십이란 “일정한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의사 결정과 의사소통 등 모든 과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리더십이란 조직 상황에 적합한 목표달성을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직 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물리적·심리적 영향력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리더십 연구는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40~1950년대에는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유능한 리더와 무능력한 리더를 구분하는 특성이론이, 1950~1960년대에는 리더의 행동과 조직 구성원의 반응을 연구하는 행동이론이, 1970년대에는 지도자의 행동과 이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반응, 그리고 조직의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리더십의 효과를 연구하는 상황이론이, 1980년 이후부터는 변혁적 리더십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이라 할 수 있는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등은 통합적 관점이 아닌 한 쪽 측면, 특히 교환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교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인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들의 관계가 계약에 기초하고 있어 조직의 과업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인정, 보수, 성과급 및 승진 등의 약속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리더십은 보상의 조건 및 제재에 대한 사항이 계약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리더십 발휘가 계약조건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해결이나 적극적인 참여, 헌신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심리적 측면에 치중하여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 구성원과 환경과의 관계 등 사회적 측면을 등한시한 면이 있었다(조평호, 1998). 이와 같은 전통적 리더십의 한계인 사회적 측면을 보완하면서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리더십

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대두되었는데, 그 중 가장 대표되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다.

나.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과 구성 요인

1)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변혁적 리더십이란 교환적 리더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1980년대 이전의 리더십 이론을 보완하는 새로운 리더십 이론으로서, Burns에 의해 제시된 transforming leadership을 Bass가 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바꾸어 사용한 국어적 번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변혁 지향적, 변화 지향적, 변혁형, 변형적, 전환적 리더십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urns(1978)는 변혁적 리더십을 ‘지도자와 추종자 상호간의 도덕성과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하였다(박정선, 2007, 재인용).

Bass(1985)는 Burns의 이론을 좀 더 정교한 이론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지도자의 개인적 가치와 지도자에 대한 부하들의 확고한 믿음이나 신념을 유발시키며, 지도자가 부하들에게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 주고 모범을 보이며, 부하들의 요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절한 자극을 통해 조직 및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을 구성원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은 ①설정된 결과들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위자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과정 ②집단, 부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 하위자에게 자신을 초월하도록 유도하는 과정 ③하위자의 욕구를 안정 및 소속의 욕구와 같은 하위 욕구에서 자아실현과 같은 상위 수준의 욕구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하였다.(김경희, 2007, 재인용).

이한검(1994)은 Bass가 분류한 교환적 리더와 변혁적 리더의 특성을 <표 1>과 같이 비교·정리하였다.

<표 1> 교환적 리더와 변혁적 리더의 특성 비교

교환적 리더의 특성	변혁적 리더의 특성
1. 보상 ○ 노력에 대한 보상의 교환을 계약함 ○ 업적이 높으면 보상을 약속함 ○ 업적 수행을 인정함 2. 예외 관리(적극적) ○ 규정과 표준에 따라 격차를 알아내고 행동을 수정함 3. 예외 관리(소극적) ○ 표준에 맞지 않을 때만 계약함 4. 자유방임 ○ 책임을 위양함 ○ 의사결정을 회피함	1. 카리스마 ○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 ○ 자부심을 줌 ○ 존경과 신뢰를 얻음 2. 감화적 행위 ○ 높은 기대를 전달함 ○ 노력에 초점을 두는 상징을 활용함 ○ 단순한 방법으로 중요한 목적을 표현함 3. 지적 자극 ○ 지식, 합리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함 4. 개별적 관심 ○ 개인에 관심을 둠 ○ 각자를 개인적으로 상대하고 지도·충고함

자료 : 이한검(1994), 인간행동론, p.456

House(1977)는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에 비해 발전 지향적이긴 하지만, 리더의 관심은 거래적 리더십과 같이 조직의 성장을 위해 구성원의 과업성 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으므로 변혁적 리더십을 교환적 리더십의 한 사례로 보았 으며, Hater와 Bass(1988)는 변혁적 리더십과 교환적 리더십의 접근 방식이 어 떤 목표나 목적에 관련되어 있으며 변혁적 리더십은 교환적 리더십을 증대시킨 다고 하였다(김정순, 2009, 재인용).

변혁적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과 구별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인식하고, 구 성원을 동기화시키고 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리더의 역량 을 강조한 연구자로 김창걸과 노종희가 있다.

김창걸(1994)은 변혁적 리더십을 성장욕구를 자극하고 동기화시킴으로써 구 성원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켜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이끌어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리더십이라고 하였고, 노종희(1996)는 리더와 부하가 상 호간에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켜 조 직목표에 대한 높은 헌신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라 하였다.

또한 구성원과 리더 양자 모두의 자발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변혁적 리더십 의 특징을 파악한 연구자로는 조평호와 김정순을 들 수 있다. 조평호(1998)는 변혁적 리더십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구성원

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인간적 관계를 통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리더십이라 하였고, 김정순(2009)은 구성원과 리더 모두의 동기 유발과 도덕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며,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들의 성장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구성원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라고 하였다.

조직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의 자발적 헌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변혁적 리더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는 연구자로 이병진(2003)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변혁적 리더십을 외부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고 감지하며, 그 흐름이 조직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제도화하는 등 조직의 상황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이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스스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갖게 함으로써 조직목표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변혁적 리더십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변혁적 리더십이란 리더가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되어 변혁의 담당자로서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시켜 구성원들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해 헌신하게 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만큼이나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도 매우 다양하다.

Bass와 Avolio(1990)는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으로 카리스마(charisma), 영감(inspiration), 개인적 배려(individual consideration),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4가지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한은미, 2009, 재인용).

첫째, 카리스마는 리더가 뛰어난 의사소통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여 구성원들의 태도, 동기, 감정변화에 영

향을 줌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기대 이상의 노력을 유발시킨다.

둘째, 영감은 일상적인 노력을 기대 이상의 노력으로 전환하는 주요 요소로서, 리더는 언어, 의미 있는 상징, 이미지 등을 통해 비전과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정서적 호소를 통해 목표와 신뢰를 증진시킨다.

셋째, 개인적 배려는 리더가 구성원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반응을 촉진하고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넷째, 지적 자극은 리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구성원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권인탁(1994)은 변혁적 리더십 요인으로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인적 배려, 결속 촉진 4가지를 제시하고 각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카리스마는 영감적인 호소의 개념을 포함하는 감화적 행위, 신뢰감, 특별한 능력, 적절한 모델 제시, 비전 제시 등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어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요인이다.

둘째, 지적 자극은 지적 능력 활용, 합리적 근거 사용, 문제 핵심 파악, 업무에 대한 심사숙고, 업무의욕에 대한 지적 자극 등으로서 이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지적 능력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학습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개인적 배려는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 업무처리에 대한 관심과 개별적 조언으로서 조력자, 동료 등에게 리더가 베풀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결속 촉진은 협동적 문화 유지, 각종 회의의 의사 결정, 연대감 형성, 외부로부터의 보호 등으로서 협동성을 바탕으로 구성원을 이끌고 건설적이며 창조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김창걸(1999)은 연구자들의 변혁적 리더십 구성요인을 <표 2>와 같이 분석한 후,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을 비전 제시, 개인적 배려, 선도적 추진성, 성과적 기대로 정의하였다.

<표 2> 변혁적 리더십 구성요인 종합표

구 분	카리스마	영감	지적자극	개인배려	비전제시	신뢰	학습촉진	술선수범	여건조성	변화촉진	용기	대처능력	성과기대	목표수용	학교문화	집단참여	권한위임	공동가치
Bass&Avolio (1990)	○	○	○	○														
Bennis&Nanus (1985)					○	○	○											
Kouzes&Posner (1987)					○			○	○									
Tichy&Devanna (1986)					○	○	○			○	○	○						
Podsakoff (1990)			○	○	○			○					○	○				
Sergiovanni (1990)					○									○	○		○	○
Leithwood (1994)			○	○	○			○		○	○		○	○	○	○	○	
Leithwood, Tarrinson & Genge (1996)	○	○	○	○	○			○					○	○	○	○		
노종희(1994)				○				○		○								
노종희(1996)			○	○	○			○					○	○	○	○		
권인탁(1995)	○	○	○	○											○			
조평호(1998)				○	○			○					○					
종합	3	3	6	8	9	2	2	7	1	3	2	1	5	5	5	3	2	1

자료 : 김창걸(1999).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과 귀인과의 관계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17(2), p.139.

이상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권인탁이 제시한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인적 배려, 결속 촉진의 4가지를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으로 하였다.

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학생, 환경, 교사라고 볼 때 교사의 리더십이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우지현, 2006).

학교 교육은 실제적으로 학급단위로 이루어지며, 학급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여 형성되는 심리적·사회적 집단으로서 사회 규범과 가치 및 행동 양식을 학습하고 개인의 자질을 길러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쌓는 장인 것이다(이병진, 2003).

따라서 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인적 자원인 담임교사의 역량을 개발하여 학생이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위학급의 총체적 경영자로서 학급에 비전 및 학급 운영방침을 제시하고, 긍정적 풍토를 형성하고 실천에 옮겨 학생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행위자로서의 학급 리더인 담임교사의 리더십이 더욱 요구된다(한은미, 2009).

이와 같이 단위학급의 총체적 경영자이며 학급의 리더인 담임교사에게는 학생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학생 스스로 성취의욕을 가지고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리드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학생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학생 결속, 학생에 대한 개별적 배려 등을 통해 학생의 성취 욕구 및 지적능력을 자극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도와주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으로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결속 촉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리스마에는 학생을 매료시키는 능력, 믿음, 존경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지적 자극에는 학생의 지적 능력 자극과 합리성 요구, 심사숙고 등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개별적 배려에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배려, 지도 및 충

고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넷째, 결속 촉진에는 담임교사의 지도성, 공동체 의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자기효능감

가. 자기효능감의 정의

Bandura(1986, 1997)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특정과업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안성철, 2009, 재인용).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신념과 기술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때 결과가 유발되며, 실행과 실행의 결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또한 인간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자기효능감이며, 개인이 일련의 행동을 수행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 인지는 자기효능감에 의한 예측이며,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일에 개입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의 강도 및 지속성을 유지하는 동력화 역할을 한다.

즉 자기효능감은 우리가 어떤 과제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 정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수행능력보다는 자신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가에 따라 예견된다 할 것이다.

나. 자기효능감의 근원

자기효능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근원으로 이루어지는데, 획득된 정보가 변화하면 자기효능감도 변화한다.

Bandura(1997)는 성공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s),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s),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적·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의 4가지 요소가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근원이며 이러한 근원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한은미, 2009, 재인용).

첫째,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근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본인의 성공경험은 성공하기 위해 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신뢰감 있는 증거로,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계속 실패하면 자기효능감은 낮아지게 된다.

둘째, 대리적 경험은 타인의 행동 관찰에 의해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성공적인 행동은 타인 관찰을 통해 자신도 그 사람처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리적 경험은 성공경험보다 자기효능감 형성에 상대적으로 약한 효과를 미치기는 하지만 수행에 대한 노력이 유의미하다는 믿음과 지속적인 노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언어적 설득은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스스로 믿도록 말해주는 것으로, 언어적 설득에 의해 생긴 자기효능감은 직접 경험이나 대리적 경험에 의해 생긴 것 보다는 약하지만 설득자의 지위, 신뢰성, 전문적 지식, 노력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넷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때 생리적·정서적 상태에 의해 전달되는 신체적 정보에 의존한다.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상태 유지, 스트레스 수준과 부정적 정서 경향 감소, 생리적·정서적 상태에 대한 잘못된 해석 정정 등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상태 등의 자기효능감 근원들은 인지적 과정을 거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이러한 근원들에 대한 자각 능력, 노력 투입량, 모델과의 유사성, 설득자의 신뢰도 등의 개인적 요인들에 대한 인지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다.

다. 자기효능감의 효과

교육학 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은 정해진 수준에서 학생이 학습관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성취관련 인지,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강한 학생일수록 새로운 임무에 대한 도전심이 강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인내하며,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Multon, Brown & Lent(1991)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능력이 비슷한 동료학생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높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성철, 2009, 재인용).

또한 Bong(2001)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변수를 자아조절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 학문적 성취에 대한 자기효능감, 학업 코스에 대한 자기효능감, 컨텐츠에 대한 자기효능감, 문제해결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 변수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컴퓨터 활용 능력, 수시고사 결과, 기말고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우지현, 2006, 재인용)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학생을 내적으로 동기화시켜주고 성취도 및 활동의 선택, 과제 지속성, 노력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분석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자아개념을 지닌 독립된 존재로 성장한다. 어릴 때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또래 집단과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기인 중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을 내적으로 동기화시켜주고 성취 및 활동의 선택, 과제 지속성, 노력에 많은 영향을 주어 개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중학생들은 조례, 종례, 수업, 상담 등으로 담임교사와 공적, 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 자료가 충분치 않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이라는 두 변인간의 관련성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최근에 이루어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것 보다는 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연구 대상은 초등학생(강미선,2009 :김경희,2007 :김정순,2009 :박정선,2007 :박창건,2011 :이정민,2011 :임임선,2010 등)과 고등학생(김옥,2008 :김정애,2008 :우지현,2006 :주동진,2011 :한은미,2009 등)이 대다수였다.

연구 주제별로 살펴보면,

첫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들의 학습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자로는 박창건(2011), 송호순(2002), 이정민(2011), 임임선(2009), 최정희(2004)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학습의욕, 수업 참여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정민(2011)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은 보통 이상이고, 남교사보다는 여교사, 부장교사보다는 일반교사, 40대교사보다는 2,30대교사, 10년 이내 경력 교사의 변혁적 지도성 수준이 높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높게 지각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와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이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 변인(학급조직의 효과성, 학급 풍토, 학급조직 건강 등)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자로는 김경희(2007), 김미래(2006), 김미화(2003), 김옥(2008), 김정순(2009), 이문환(2005), 박정선(2007)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급 풍토의 다양성과 만족성, 학급집단의 응집성, 학급조직 효과성, 학급풍토, 학급조직 건강 등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들 중 김미화(2003)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급조직 효과성과의 관계”에서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 수준은 보통 이상이고, 하위요인에서는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은 학급조직 효과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여교사, 저경력 교사, 미혼교사, C,D 급지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셋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정서 및 가치 관련 변인(신뢰도, 창의성, 진로의식, 학교생활, 만족도, 자기 효능감 등)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자로는 강미선(2009), 김영식(2008), 김정애(2008), 주동진(2011), 차인순(2006), 채은아(2007), 한은미(2009)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생의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 만족도, 창의성, 진로의식 성숙, 학교생활 적응, 수업 만족도, 학교생활 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 중 주동진(2011)은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30대보다는 20,40대 교사가 높고, 2학년보다는 1학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높게 지각하며,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은미(2009)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3학년, 1학년, 2학년 순으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나.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크게 자기 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한 연구와 자기 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한 선행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유머감각(강혜미,2009), 자기조절학습 능력(이남희,2007) 등의 개인적 특성 변인, 자기성장 집단상담(신상곤,2007), 학급 풍토(심계화,2004) 등의 집단 역동 관련 변인, 그리고 담임교사의 인화적 리더십(우지현,2006),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한은미,2009), 담임교사의 사회적 지지도(이지민,2008),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 전략 교수(김선아,2010) 등과 같은 교사 변인이 있다.

이 중 교사 변인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우지현(2006)은 “담임교사의 리더십 유형이 학생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화중심 리더십이 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인화중심의 리더십은 친근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친근감은 신뢰감 형성에, 신뢰감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자아존중감은 자아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인화중심의 리더십이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은미(2009)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보통 이상이며, 학생은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이 높으면 학생의 자기효능감도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지민(2008)은 “담임교사의 사회적 지지도와 초등학생의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담임교사의 사회적 지지도와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도와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생의 학습태

도, 수업참여, 학업 성취도 등 학습 관련 변인과 신뢰도, 창의성, 진로의식, 학교생활, 만족도, 자기효능감 등 학생의 정서 및 가치 관련 변인, 그리고 학급 분위기, 학급조직의 효과성, 학급조직 건강 등의 집단역동 관련 변인들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생의 자기 효능감은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내의 남녀공학 중학교 중 가, 나, 다 급지별로 1개교씩 3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교별로 임의 표집한 9학급(각 학년별 3학급), 총 27개 학급의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15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배부한 설문지 900부 중 87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작성한 설문지 29부를 제외하고 841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별 특성

기초통계 분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의 배경변인(성별, 학년, 성적, 자기주도 학습 시간, 교우관계, 부모와 동거 여부, 집안 분위기, 학교 급지, 담임교사 성별, 담임교사 교직 경력)에 대한 변인별 빈도(frequency)와 백분율(%)의 빈도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별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학생의 배경변인별 특성

(N=841)

	분류	인원수	백분율
성별	남	453	53.9
	여	388	46.1
학년	1학년	284	33.8
	2학년	268	31.9
	3학년	289	34.3
성적	석차백분율 30%미만	294	35.0
	석차백분율 30%이상~70%미만	422	50.2
	석차백분율 70%이상	125	14.8
자기주도 학습시간	전혀 하지 않는다	100	11.9
	1시간 미만	214	25.4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52	30.0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39	16.5
	3시간 이상	136	16.2
교우관계	없다	61	7.3
	1명	65	7.7
	2-4명	438	52.1
	5-7명	145	17.2
	8명 이상	132	15.7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님과 함께 산다	711	84.5
	아버지와 함께 산다	35	4.2
	어머니와 함께 산다	61	7.3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한다	19	2.2
	기타	15	1.8
집안 분위기	민주형	670	79.7
	권위주의형	75	8.9
	무관심형	36	4.3
	기타	60	7.1
학교급지	가급지	291	34.6
	나급지	275	32.7
	다급지	275	32.7
담임교사 성별	남	245	29.1
	여	596	70.9
담임교사 교직경력	5년 미만	147	17.5
	5년 이만~10년 미상	159	18.9
	10년 이상~20년 미만	124	14.7
	20년 이상~30년 미만	411	48.9
전체		841	100

학생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이 53.9%로 여학생 보다 많고, 학년별로는 3학년 이 34.3%, 1학년 33.8%, 2학년 31.9%였다.

성적 분포는 석차백분율 30%미만이라는 응답이 35.0%, 30%이상~70%미만이 50.2%, 70%이상이 14.8%로 나타났는데, 학년 초 성적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보면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다소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 중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이상~2시간미만이 30.0%, 1시간미만이 25.4%, 2시간이상~3시간미만과 3시간이상이 16.5%와 16.2%로 나타났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밀을 나눌만한 친구 수를 묻는 교우관계 문항에서는 2~4명이 52.1%로 가장 높고, 친구가 한명도 없는 학생의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 비율이 84.5%로 가장 높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비율이 7.3%, 아버지와 함께 사는 비율이 4.2%,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학생비율은 2.2%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와 가정의 의사 결정과정 등을 반영하는 집안 분위기를 묻는 설문에서는 민주형이 79.7%로 가장 높았으며, 권위주의형이 8.9%, 무관심형이 4.3%로 나타났다.

학교급지는 주변환경,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교통편 등 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여건이 양호한 순으로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로 구분하는데, 가급지 학생이 34.6%, 나급지와 다급지가 32.7%였다.

담임교사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교사가 70.9%로 남교사보다 29.1%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담임교사의 교직 경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20년이상~30년미만 48.9%, 5년이상~10년미만 18.9%, 5년미만 17.5%, 10년이상~20년미만이 14.7%로 나타났다.

3. 측정 도구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 1,2,3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게 설문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각 학교의 설문조사 담당교사를 만나 설문조사의 목적, 조사 방법, 설

문조사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설문대상 학급별로 1부씩 안내문을 첨부하여 각 학급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교사들이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이 편안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임교사는 설문조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측정 검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측정 검사 도구는 권인탁(1994)이 제작한 “변혁적 지도성 측정을 위한 검사 도구” TSLQ(Transformational School leadership Questionnaire)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했던 김경희(2007)와 한은미(2009)의 자료를 중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검사 도구의 신뢰도계수인 Cronbach α 계수는 .975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측정 설문지는 카리스마, 개인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2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내용과 관련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는 <표 4>와 같다.

<표 4>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측정 도구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N=28)

하위요인	내 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카리스마	신뢰감, 감화, 적절한 모델, 비전 제시	1, 5, 9, 13, 17, 21, 25	7	.919
개별적 배려	개별적 조언, 상담,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	2, 6, 10, 14, 18, 22, 26	7	.891
지적 자극	자각, 지적능력 활용, 합리적 문제해결	3, 7, 11, 15, 19, 23, 27	7	.905
결속 촉진	협동, 연대감, 회의에 의한 의사결정, 외부 압력에 대한 보호	4, 8, 12, 16, 20, 24, 28	7	.916
진 체			28	.975

질문지 문항의 척도는 Likert식 5단계 척도에 따라 각 해당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배점하였다.

나. 학생의 자기효능감 측정 검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학생의 자기효능감 측정 검사도구는 개인의 다양한 성취관련 수행상황에서의 효능 기대 수준을 측정하는 김아영(1996)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 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2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질문지 문항의 척도는 Likert식 5단계 척도에 따라 각 해당 문항에 대해 역문항을 제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배점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계수인 Cronbach α 계수는 .886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내용과 관련한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학생의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N=24)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자신감	1(r),3(r),5(r),10(r),11(r),13(r),16(r)	7	.851
자기 조절 효능감	2,4,7,8,12,14,17,19,20,21,23,24	12	.882
과제난이도	6(r),9(r),15,18,22	5	.760
전체		24	.886

★r은 역채점 문항임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결과분석은 통계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통계처리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WIN을 사용하였다.

- 첫째, 학생의 배경 변인,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항목별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백분율(percentile), 빈도(frequency) 등을 정리하였다.
- 둘째, 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및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두 집단 간 평균비교에 활용되는 검증방법인 t-검증(t-test), 여러 집단간 평균비교에 활용되는 검증방법인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또한 분산분석 후의 평균차이에 관한 분석을 위해 사페(scheffe) 검증을 수행하였다.
- 셋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얼마나 선형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를 통계적으로 조사하여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중학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빈도 등의 기술통계와 t-검증, 분산분석, 사표 검증, 상관관계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분석,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분석,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분석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분석 및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배경 변인과의 관계를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가.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분석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분석 결과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3.41	1.03
	개별적 배려	3.57	1.03
	지적 자극	3.54	.96
	결속 촉진	3.57	.96
전체		3.52	.77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평균은 5점 만점에 3.52점으로 나타나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 하위요인 중에서는 개별적 배려와 결속 촉진이 3.57로 가장 높고, 지적 자극 3.54, 카리스마 3.41로 네 요인 간 평균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 하위요인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 ~ <표 10>과 같다.

<표 7>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중 카리스마에 대한 분석 결과

(N=7)

하위요인	세부요인	평균	표준편차
카리스마	1. 훌륭한 모습 본받음	3.42	1.05
	5.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믿음	3.44	.99
	9. 한 반이 된 것이 자랑스러움	3.54	1.09
	13. 함께라면 어려움도 이겨냄	3.28	1.06
	17. 최선을 다하게 이끌어 줌	3.65	.93
	21. 꿈과 희망을 갖도록 도와줌	3.48	.97
	25.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음	3.06	1.13
	전체	3.41	1.03

분석 결과 세부요인 중 ‘최선을 다하게 이끌어 줌’에 대한 지각이 가장 높았으며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음’이 가장 낮게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중 개별적 배려에 대한 분석 결과

(N=7)

하위요인	세부요인	평균	표준편차
개별적 배려	2. 개별적 관심과 사랑을 보임	3.56	1.09
	6. 방과 후의 생활에 관심을 보임	3.62	1.04
	10.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 줌	3.63	.98
	14. 재능을 살리고 부족함을 보충	3.41	1.04
	18. 알기 쉽게 설명해 줌	3.63	.97
	22. 소외되는 친구에게 관심을 기울임	3.65	1.03
	26. 자신감을 위해 격려해 줌	3.51	1.05
	전체	3.57	1.03

분석 결과 ‘소외되는 친구에게 관심을 기울임’에 대한 지각이 가장 높았으며 ‘재능을 살리고 부족함을 보충’에 대한 지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요인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9>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중 지적 자극에 대한 분석 결과

(N=7)

하위요인	세부요인	평균	표준편차
지적 자극	3. 생각할 기회를 줌	3.68	.98
	7. 생각을 말하길 원함	3.59	.95
	11.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게 함	3.52	.94
	15.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마음을 갖게 만듦	3.43	1.03
	19. 배운 것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	3.54	.90
	23. 생각을 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	3.52	.93
	27. 장래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함	3.51	1.02
	전체	3.54	.96

분석 결과 ‘생각할 기회를 줌’ 이 가장 높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마음을 갖게 만듦’ 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세부요인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10>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중 결속 촉진에 대한 분석 결과

(N=7)

하위요인	세부요인	평균	표준편차
결속 촉진	4. 협동하도록 만듦	3.58	.97
	8. 학급의 일을 함께 의논함	3.68	1.00
	12. 협동하여 학급 목표를 정함	3.51	1.00
	16. 힘을 모아 학급 일을 해결함	3.62	.93
	20. 권한을 주어 스스로 하게 함	3.53	.96
	24. 협의를 통해 발전하도록 도와 줌	3.50	.90
	28. 의견을 잘 받아줌	3.59	.98
	전체	3.57	.96

분석 결과 ‘학급의 일을 함께 의논함’ 이 가장 높고 ‘협의를 통해 발전하도록 도와 줌’ 이 가장 낮았으나, 각 요인 별 평균값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나.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분석

중학생의 배경변인(성별, 학년, 성적, 자기주도 학습 시간, 교우관계, 부모와 동거 여부, 집안 분위기, 학교 급지, 담임교사의 성별,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및 분산분

석을 하였다.

t-검증은 두 집단 간 평균비교에 활용되는 검증방법으로 귀무가설(歸無假說, null hypothesis)은 ‘두 집단 간에 평균 차이가 없다.’로서 p값이 유의수준 .05보다 작으면 집단 간에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산분석은 여러 집단 간 평균비교에 활용되는 검증 방법으로 귀무가설은 ‘여러 집단 간에 평균 차이가 없다’로서 p값이 유의수준 .05보다 작으면 집단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될 경우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성별에 따른 결과 분석

학생 성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를 비교해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학생 성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값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남	453	3.43	.87	.493
		여	388	3.40	.83	
	개별적 배려	남	453	3.59	.80	.532
		여	388	3.56	.81	
	지적 자극	남	453	3.55	.79	.456
		여	388	3.53	.75	
	결속 촉진	남	453	3.57	.79	-.273
		여	388	3.58	.79	
전 체	남	453	3.53	.78	.318	
	여	388	3.52	.76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을 학생 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도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결속 촉진 요인에서만 여학생이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지니는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P값이 .05보

다 커 학생 성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년에 따른 결과 분석

학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를 비교해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학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1학년	284	3.50	.84	3.735*	1-2*
		2학년	268	3.30	.91		
		3학년	289	3.43	.79		
	개별적 배려	1학년	284	3.67	.78	5.458**	1-2**
		2학년	268	3.45	.87		
		3학년	289	3.59	.73		
	지적 자극	1학년	284	3.66	.76	7.493**	1-2**
		2학년	268	3.41	.84		
		3학년	289	3.55	.69		
	결속 촉진	1학년	284	3.68	.78	8.223***	1-2*** 2-3**
		2학년	268	3.42	.85		
		3학년	289	3.61	.72		
전체	1학년	284	3.63	.76	6.494**	1-2**	
	2학년	268	3.39	.84			
	3학년	289	3.52	.70			

* : $p < .05$, ** : $p < .01$, *** : $p < .001$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도 전체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의 학년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지각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p < .05$)

따라서 학년에 따라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이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어느 학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샤페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난 학년은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1학년과 2학년 간이었으며, 결속 촉진 요인에서는 2학년과 3학년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1학년이 2학년 보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성적에 따른 결과 분석

학생의 성적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를 비교해 보고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성적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하위요인	석차백분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30%미만	294	3.48	.84
		30%이상~70%미만	422	3.35	.86
		70%이상	125	3.45	.80
	개별적 배려	30%미만	294	3.65	.80
		30%이상~70%미만	422	3.52	.81
		70%이상	125	3.58	.74
	지적 자극	30%미만	294	3.59	.76
		30%이상~70%미만	422	3.49	.80
		70%이상	125	3.58	.70
	결속 촉진	30%미만	294	3.65	.78
		30%이상~70%미만	422	3.53	.81
		70%이상	125	3.56	.72
전체	30%미만	294	3.59	.76	
	30%이상~70%미만	422	3.47	.79	
	70%이상	125	3.54	.71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석차백분율 ‘30%미만’ 이 변혁적 리더십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30%이상~70%미만’ 이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도 전체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성적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지각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 및

하위요인에서 p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학생의 성적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지각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따른 결과 분석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를 비교해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전혀 하지 않는다	100	3.22	.82	2.410*
		1시간 미만	214	3.38	.87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52	3.48	.7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39	3.38	.87	
		3시간 이상	136	3.51	.94	
	개별적 배려	전혀 하지 않는다	100	3.45	.79	1.697
		1시간 미만	214	3.52	.83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52	3.64	.73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39	3.55	.81	
		3시간 이상	136	3.65	.86	
	지적 자극	전혀 하지 않는다	100	3.37	.79	2.577*
		1시간 미만	214	3.50	.81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52	3.63	.67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39	3.50	.78	
		3시간 이상	136	3.60	.84	
	결속 진	전혀 하지 않는다	100	3.40	.76	2.009
		1시간 미만	214	3.54	.82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52	3.65	.72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39	3.57	.79	
		3시간 이상	136	3.61	.86	
전체	전혀 하지 않는다	100	3.36	.76	2.275	
	1시간 미만	214	3.48	.81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52	3.60	.68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39	3.50	.78		
	3시간 이상	136	3.59	.84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시간이 ‘1시간이상~2시간미만’ 인 학생이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시간이상’ , ‘2시간이상~3시간미만’ , ‘1시간미만’ , ‘전혀 하지 않는다.’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3시간이상’ 인 학생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지적 자극과 결속 촉진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1시간이상~2시간미만’ 인 학생이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을 ‘전혀 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학생은 모든 하위요인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시간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지각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p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카리스마와 지적 자극의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이 자기주도 학습시간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샤페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p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교우관계에 따른 결과 분석

학생의 교우관계(비밀을 나눌만한 친구 수)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를 비교해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교우관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없다	61	3.23	.94
		1명	65	3.27	.91
		2~4명	438	3.42	.79
		5~7명	145	3.47	.90
		8명 이상	132	3.48	.89
	개별적 배려	없다	61	3.43	.92
		1명	65	3.43	.89
		2~4명	438	3.60	.73
		5~7명	145	3.56	.86
		8명 이상	132	3.63	.83
	지적 자극	없다	61	3.37	.93
		1명	65	3.38	.83
		2~4명	438	3.57	.70
		5~7명	145	3.54	.82
		8명 이상	132	3.60	.82
	결속 촉진	없다	61	3.40	.91
		1명	65	3.44	.90
		2~4명	438	3.58	.71
		5~7명	145	3.59	.85
		8명 이상	132	3.67	.83
전체	없다	61	3.36	.89	
	1명	65	3.38	.85	
	2~4명	438	3.54	.70	
	5~7명	145	3.54	.83	
	8명 이상	132	3.60	.82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친구가 ‘8명이상’ 인 학생이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5~7명’ 과 ‘2~4명’ 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명’ , ‘없다’ 순으로 나타나 친구가 많을수록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 등 모든 하위 요인에서 친구수가 ‘8명이상’ 인 학생의 지각이 가장 높고, ‘친구가 없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지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교우관계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지각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 p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6)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른 결과 분석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를 비교해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부모님과 함께 산다	711	3.42	.85
		아버지와 함께 산다	35	3.38	.70
		어머니와 함께 산다	61	3.27	.90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	19	3.52	.62
		기타	15	3.34	.87
	개별적 배려	부모님과 함께 산다	711	3.59	.80
		아버지와 함께 산다	35	3.47	.67
		어머니와 함께 산다	61	3.47	.86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	19	3.62	.72
		기타	15	3.32	.88
	지적 자극	부모님과 함께 산다	711	3.56	.77
		아버지와 함께 산다	35	3.47	.62
		어머니와 함께 산다	61	3.37	.84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	19	3.56	.69
		기타	15	3.58	.91
	결속 촉진	부모님과 함께 산다	711	3.59	.79
		아버지와 함께 산다	35	3.45	.71
		어머니와 함께 산다	61	3.41	.83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	19	3.55	.66
		기타	15	3.58	.90
전체	부모님과 함께 산다	711	3.54	.77	
	아버지와 함께 산다	35	3.44	.64	
	어머니와 함께 산다	61	3.38	.84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	19	3.56	.65	
	기타	15	3.46	.87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학생,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 기타, 아버지와 함께 사는 학생,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학생 순이었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는 ‘부모와 떨어져 산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적 자극은 ‘기타’, 결속

축진은 ‘부모와 함께 산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낸 집단은 ‘어머니와 함께 산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었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지각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의 p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7) 집안분위기에 따른 결과 분석

학생의 집안 분위기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를 비교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전체적, 하위요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집안분위기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1. 민주형	670	3.43	.84	2.441	
		2. 권위주의형	75	3.34	.89		
		3. 무관심형	36	3.06	.78		
		4. 기타	60	3.46	.84		
	개별적 배려	1. 민주형	670	3.59	.80	2.889*	1-3*
		2. 권위주의형	75	3.57	.77		
		3. 무관심형	36	3.19	.72		
		4. 기타	60	3.62	.82		
	지적 자극	1. 민주형	670	3.56	.76	2.134	
		2. 권위주의형	75	3.48	.81		
		3. 무관심형	36	3.24	.71		
		4. 기타	60	3.58	.80		
	결속 촉진	1. 민주형	670	3.60	.78	3.354*	1-3*
		2. 권위주의형	75	3.49	.84		
		3. 무관심형	36	3.20	.71		
		4. 기타	60	3.61	.81		
전체	1. 민주형	670	3.55	.77	2.857*	1-3*	
	2. 권위주의형	75	3.47	.80			
	3. 무관심형	36	3.17	.70			
	4. 기타	60	3.57	.79			

* : p<.05, ** : p<.01, *** : p<.001

집안 분위기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안 분위기가 ‘기타’ 라고 응답한 학생의 지각이 가장 높고, ‘민주형’, ‘권위주의형’, ‘무관심형’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 등 모든 하위요인에서 ‘기타’ 라고 응답한 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하위요인의 평균이 가장 낮은 학생은 ‘무관심형’ 으로 나타나 전체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집안분위기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지각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 중 개별적 배려와 결속 촉진의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처럼 집안분위기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전체와 하위요인인 개별적 배려와 결속 촉진에서 유의미한 검증 결과가 나오에 따라 담임교사 변혁적 리더십 지각 차이가 어떤 집안분위기 요인 간에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페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개별적 배려, 결속 촉진 항목에서 민주형과 무관심형 간에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생의 집안분위기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지각에는 ‘민주형’ 과 ‘무관심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민주형 집안분위기의 학생이 무관심형 집안분위기 학생보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 학교 급지에 따른 결과 분석

학교 급지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지각 차이를 알아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페 검증을 활용하여 어떤 학교 급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학교 급지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1. 가급지	291	3.34	.89	3.256*	1-2*
		2. 나급지	275	3.52	.86		
		3. 다급지	275	3.38	.78		
	개별적 배려	1. 가급지	291	3.55	.81	3.205*	2-3*
		2. 나급지	275	3.67	.84		
		3. 다급지	275	3.50	.74		
	지적 자극	1. 가급지	291	3.51	.78	2.064	
		2. 나급지	275	3.62	.80		
		3. 다급지	275	3.50	.72		
	결속 촉진	1. 가급지	291	3.57	.79	4.099*	2-3*
		2. 나급지	275	3.67	.84		
		3. 다급지	275	3.48	.72		
전체	1. 가급지	291	3.49	.79	3.090*		
	2. 나급지	275	3.62	.80			
	3. 다급지	275	3.47	.71			

* : p<.05, ** : p<.01, *** : p<.001

학교 급지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결과, 나급지 학생의 지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급지, 다급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급지와 다급지의 평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위요인 중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은 나급지, 가급지, 다급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카리스마는 나급지, 다급지, 가급지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지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지각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요인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와 결속 촉진의 p값도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학교급지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하위요인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결속 촉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담임교사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 차이가 어떤 학교 급지 간에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샵페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p값이 .05보다 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급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위요인인 카리스마는 가급지 학생과 나급지 학생 간에, 개별적 배

려와 결속 촉진은 나급지와 다급지 학생간에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9)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결과 분석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학생의 지각 차이를 비교해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값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남	245	3.54	.75	3.054**
		여	596	3.36	.88	
	개별적 배려	남	245	3.66	.72	2.032*
		여	596	3.54	.83	
	지적 자극	남	245	3.65	.67	2.822**
		여	596	3.50	.80	
	결속 촉진	남	245	3.65	.70	2.015*
		여	596	3.54	.82	
전체	남	245	3.62	.68	2.598*	
	여	596	3.48	.80		

* : $p < .05$, ** : $p < .01$, *** : $p < .001$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학생의 지각 차이를 분석결과, 남자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이 여자담임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 등 모든 요인에서 남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이 여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지니는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t-검증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p 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 결과에서도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 등 모든 요인에서 p 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학생의 지각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여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10) 담임교사의 교직 경력에 따른 결과 분석

담임교사의 교직 경력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학생의 지각 차이를 비교해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1. 5년 미만	147	3.40	.85	9.348***	1-2*
		2. 5년 이상~10년 미만	159	3.72	.82		2-3***
		3. 10년 이상~20년 미만	124	3.29	.76		2-4***
		4. 20년 이상~30년 미만	411	3.33	.86		
	개별적 배려	1. 5년 미만	147	3.58	.82	11.654***	1-2**
		2. 5년 이상~10년 미만	159	3.90	.79		2-3***
		3. 10년 이상~20년 미만	124	3.47	.69		2-4***
		4. 20년 이상~30년 미만	411	3.48	.79		
	지적 자극	1. 5년 미만	147	3.53	.81	7.851***	1-2*
		2. 5년 이상~10년 미만	159	3.80	.75		2-3*
		3. 10년 이상~20년 미만	124	3.50	.67		2-4***
		4. 20년 이상~30년 미만	411	3.46	.77		
	결속 촉진	1. 5년 미만	147	3.51	.82	9.929***	1-2**
		2. 5년 이상~10년 미만	159	3.87	.78		2-3**
		3. 10년 이상~20년 미만	124	3.49	.68		2-4***
		4. 20년 이상~30년 미만	411	3.50	.78		
전체	1. 5년 미만	147	3.50	.80	10.333***	1-2**	
	2. 5년 이상~10년 미만	159	3.82	.76		2-3*	
	3. 10년 이상~20년 미만	124	3.44	.67		2-4***	
	4. 20년 이상~30년 미만	411	3.44	.77			

* : p<.05, ** : p<.01, *** : p<.001

담임교사의 교직 경력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 차이 분석 결과 ‘5년이상~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5년미만’ , ‘20년이상~3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은 ‘5년이상~10년미만’ 경력 교사가 가장 높고, 지적 자극을 제외한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결속 촉진 요인은 ‘10년이상~20년미만’ 경력 교사가 가장 낮게 나타나 담임교사의 교직 경력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과 하위요인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담임교사의 경력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학생의 지각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에서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담임교사의 경력에 따라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학생의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담임교사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이 담임교사의 경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어떤 경력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샤페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에서 ‘5년미만’ 과 ‘5년이상~10년미만’ 경력 집단 간, ‘5년이상~10년미만’ 과 ‘10년이상~20년미만’ 경력 집단 간, 그리고 ‘5년이상~10년미만’ 과 ‘20년이상~30년미만’ 경력 집단 간의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력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학생의 지각은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5년이상~10년미만’ 경력집단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기타 집단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분석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수준,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과 학생의 배경 변인과의 관계를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가.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분석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학생의 자기효능감 분석 결과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자기효능감	자신감	3.29	.81
	자기조절효능감	3.31	.58
	과제난이도	2.81	.72
전체		3.20	.52

분석결과 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신감, 과제난이도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 난이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2> ~ <표 24>와 같다.

<표 22> 학생의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대한 분석 결과

(N=7)

하위요인	세부요인	평균	표준편차
자신감	1.우울감 극복력	3.56	1.14
	3.불안감 극복력	3.32	1.20
	5.위험 상황 대처능력	3.46	1.08
	10.스트레스 극복력	2.92	1.18
	11.실패감 극복력	3.25	1.09
	13.월등력	3.20	1.05
	16.어려운 일 처리능력	3.34	1.00
전체		3.29	1.11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대한 분석 결과 ‘우울감 극복력’이 가장 높고, ‘스트레스 극복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 부담스런 상황에서 우울감보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3> 학생의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

(N=12)

하위요인	세부요인	평균	표준편차
자기조절효능감	2. 체계적 처리능력	3.11	.90
	4. 어려움 극복 능력	3.42	.90
	7. 분석력	3.32	.85
	8. 능력 판단력	3.70	.87
	12. 문제 판단력	3.27	.84
	14. 목표설정 및 판단력	3.13	.86
	17. 정보 활용력	3.45	.81
	19. 계획성	3.25	1.04
	20. 시정력	3.32	.88
	21. 지속력	3.28	.88
	23. 정확성	3.07	.84
	24. 도전정신	3.41	.94
전체		3.31	.88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에 대한 분석 결과 ‘능력 판단력’ 요인이 가장 높고 ‘정확성’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4> 학생의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에 대한 분석 결과

(N=5)

하위요인	세부요인	평균	표준편차
과제난이도	6. 쉬운일	2.29	1.05
	9. 선택력	2.62	.98
	15. 실수 극복력	3.00	1.00
	18. 도전력	3.24	.97
	22. 극복력	2.90	1.02
전체		2.81	1.00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에 대한 분석 결과 ‘도전력’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쉬운일’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나 학생이 되도록 쉬운 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분석

중학생의 배경변인(성별, 학년, 성적, 자기주도 학습 시간, 교우관계, 부모와 동거 여부, 집안 분위기, 학교 급지, 담임교사의 성별,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및 분산분석을 하였다.

1) 성별에 따른 결과 분석

성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학생 성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기효능감	자신감	남	453	3.41	.78	4.840***
		여	388	3.15	.82	
	자기조절 효능감	남	453	3.33	.60	1.119
		여	388	3.29	.57	
	과제난이도	남	453	2.88	.72	2.989**
		여	388	2.73	.71	
전체	남	453	3.26	.49	3.703***	
	여	388	3.13	.54		

* : $p < .05$, ** : $p < .01$, *** : $p < .001$

학생 성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성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 중 자신감과 과제난이도의 p값이 .05보다 작아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학년에 따른 결과 분석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비교해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샤페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학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자기 효능감	자신감	1학년	284	3.39	.84	3.017*
		2학년	268	3.25	.82	
		3학년	289	3.23	.75	
	자기조절 효능감	1학년	284	3.35	.59	1.235
		2학년	268	3.27	.58	
		3학년	289	3.31	.58	
	과제 난이도	1학년	284	2.85	.75	.679
		2학년	268	2.81	.65	
		3학년	289	2.78	.74	
전체	1학년	284	3.26	.54	2.398	
	2학년	268	3.17	.49		
	3학년	289	3.18	.51		

* : $p < .05$, ** : $p < .01$, *** : $p < .001$

학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결과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지만, 2학년과 3학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는 1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과 과제난이도는 2학년이, 자기조절효능감은 3학년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p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으나, 하위요인 중 자신감의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신감에서 어느 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샤페 검증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5보다 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학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적에 따른 결과 분석

성적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성적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하위요인	석차백분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자기 효능감	자신감	1. 30%미만	294	3.32	.81	.843	
		2. 30%이상~70%미만	422	3.26	.82		
		3. 70%이상	125	3.34	.75		
	자기조절 효능감	1. 30%미만	294	3.43	.61	9.948***	1-2**
		2. 30%이상~70%미만	422	3.27	.56		1-3**
		3. 70%이상	125	3.19	.56		
	과제 난이도	1. 30%미만	294	2.87	.72	1.746	
		2. 30%이상~70%미만	422	2.78	.71		
		3. 70%이상	125	2.77	.74		
전체	1. 30%미만	294	3.28	.53	5.501**	1-2**	
	2. 30%이상~70%미만	422	3.16	.50		1-3*	
	3. 70%이상	125	3.15	.52			

* : $p < .05$, ** : $p < .01$, *** : $p < .001$

성적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결과 석차백분율 30%미만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이상~70%미만, 70%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성적이 우수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는 석차백분율 30%미만 학생이 가장 높고, 자신감은 70%이상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의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처럼 전체와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어떤 성적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에서 ‘30%미만’ 성적 집단과 ‘30%이상~70%미만’ 성적집단 간, 그리고 ‘30%미만’ 성적 집

단과 ‘70%이상’ 성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따른 결과 분석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구분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자기 효능감	자신감	1. 전혀 하지 않는다	100	3.27	0.84	2.542*	
		2. 1시간 미만	214	3.17	0.78		
		3.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52	3.28	0.75		
		4.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39	3.44	0.75		
		5. 3시간 이상	136	3.36	0.94		
	자기조절 효능감	1. 전혀 하지 않는다	100	3.07	0.64	11.728***	1-3** 1-4** 1-5*** 2-4* 2-5**
		2. 1시간 미만	214	3.20	0.59		
		3.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52	3.35	0.51		
		4.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39	3.40	0.55		
		5. 3시간 이상	136	3.51	0.60		
	과제 난이도	1. 전혀 하지 않는다	100	2.62	0.72	6.302***	1-4* 1-5** 2-5**
		2. 1시간 미만	214	2.69	0.74		
		3.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52	2.84	0.66		
		4.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39	2.93	0.66		
		5. 3시간 이상	136	2.98	0.78		
전체	1. 전혀 하지 않는다	100	3.04	0.50	10.473***	1-3* 1-4** 1-5*** 2-4** 2-5***	
	2. 1시간 미만	214	3.08	0.50			
	3.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52	3.22	0.47			
	4.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39	3.31	0.50			
	5. 3시간 이상	136	3.35	0.57			

* : p<.05, ** : p<.01, *** : p<.001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결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3시간이상’ 인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고 자기주도 학습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자신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 ‘1시간이상~2시간미만’, ‘전혀 하지 않는다’, ‘1시간미만’ 순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는 전체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시간이 많을수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주도 학습시간별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의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처럼 전체와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요인에서 유의미한 검증 결과가 나오에 따라 샤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로는 ‘전혀 하지 않는다’와 ‘1시간이상~2시간미만’, ‘전혀 하지 않는다’와 ‘2시간이상~3시간미만’, ‘전혀 하지 않는다’와 ‘3시간이상’, ‘1시간미만’과 ‘2시간이상~3시간미만’, ‘1시간미만’과 ‘3시간이상’ 집단 간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은 전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과제난이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와 ‘2시간이상~3시간미만’, ‘전혀 하지 않는다’와 ‘3시간이상’, ‘1시간미만’과 ‘3시간이상’ 집단 간 p값이 .05보다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교우관계에 따른 결과 분석

교우관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샤페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교우관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자기 효능감	자신감	1. 없다	61	3.13	.85	6.469***	1-5 ^{**} 2-5 [*] 3-5 ^{***}
		2. 1명	65	3.16	.80		
		3. 2-4명	438	3.23	.77		
		4. 5-7명	145	3.33	.79		
		5. 8명 이상	132	3.59	.84		
	자기조절 효능감	1. 없다	61	3.04	.61	8.559***	1-3 [*] 1-4 [*] 1-5 ^{***} 2-5 ^{**} 3-5 ^{**}
		2. 1명	65	3.18	.53		
		3. 2-4명	438	3.30	.56		
		4. 5-7명	145	3.32	.54		
		5. 8명 이상	132	3.52	.64		
	과제 난이도	1. 없다	61	2.69	.83	1.737	
		2. 1명	65	2.68	.62		
		3. 2-4명	438	2.81	.69		
		4. 5-7명	145	2.82	.72		
		5. 8명 이상	132	2.92	.78		
전체	1. 없다	61	3.00	.49	9.839***	1-5 ^{***} 2-5 ^{***} 3-5 ^{***} 4-5 [*]	
	2. 1명	65	3.07	.48			
	3. 2-4명	438	3.18	.51			
	4. 5-7명	145	3.22	.47			
	5. 8명 이상	132	3.41	.55			

* : p<.05, ** : p<.01, *** : p<.001

교우관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결과, 비밀을 나눌만한 친구가 8명 이상인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고, ‘친구가 없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낮았으며, 친구수와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은 전체와 마찬가지로 친구가 많을수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별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 중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의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어떤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없다’와 8명이상’ 집단 간, ‘1명’과 ‘8명이상’ 집단 간, ‘2~4명’과 ‘8명이상’ 집단 간, ‘5~7명’과 ‘8명이상’ 집단 간에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하위요인 중 자신감은 ‘없다’와 ‘8명이상’ 집단 간, ‘1명’과 ‘8명이상’ 집단 간, ‘2~4명’과 ‘8명이상’ 집단 간에 p값이 .05보다 작았으며, 자기조절효능감은 ‘없다’와 ‘2~4명’ 집단 간, ‘없다’와 ‘5~7명’ 집단 간, ‘없다’와 ‘8명 이상’ 집단 간, ‘1명’과 ‘8명 이상’ 집단 간, ‘2~4명’과 ‘8명 이상’ 집단 간에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교우관계(친한 친구 수)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나며 친구수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른 결과 분석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비교해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0>과 같다.

<표 30>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자기 효능감	자신감	1. 부모와 산다	711	3.29	.82	.489	
		2. 아버지와 산다	35	3.26	.70		
		3. 어머니와 산다	61	3.20	.79		
		4. 부모와 떨어져 산다	19	3.39	.73		
		5. 기타	15	3.49	.72		
	자기조절 효능감	1. 부모와 산다	711	3.34	.58	4.767**	1-3**
		2. 아버지와 산다	35	3.20	.55		
		3. 어머니와 산다	61	3.03	.61		
		4. 부모와 떨어져 산다	19	3.31	.50		
		5. 기타	15	3.15	.34		
	과제 난이도	1. 부모와 산다	711	2.83	.71	4.248**	1-3*
		2. 아버지와 산다	35	2.85	.72		
		3. 어머니와 산다	61	2.50	.73		
		4. 부모와 떨어져 산다	19	2.61	.78		
		5. 기타	15	3.11	.79		
전체	1. 부모와 산다	711	3.22	.51	3.581**	1-3**	
	2. 아버지와 산다	35	3.14	.50			
	3. 어머니와 산다	61	2.97	.55			
	4. 부모와 떨어져 산다	19	3.19	.45			
	5. 기타	15	3.24	.40			

* : $p < .05$, ** : $p < .01$, *** : $p < .001$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결과, ‘기타’ 라고 응답한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산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었으며 ‘어머니와 함께 산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과제난이도는 ‘기타’ 라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고, 자기조절효능감은 ‘부모님과 함께 산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함께 산다’ 라고 응답한 학생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낮고, 다른 학생집단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전체와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의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어떤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와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요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산다’와 ‘어머니와 함께 산다’ 간의 p값이 .05보다 작아 두 집단 간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와 사는 학생의 자기효능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7) 집안분위기에 따른 결과 분석

집안분위기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비교해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집안분위기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자기 효능감	자신감	1. 민주형	670	3.33	.79	2.981*	
		2. 권위주의형	75	3.10	.84		
		3. 무관심형	36	3.17	.81		
		4. 기타	60	3.14	.92		
	자기조절 효능감	1. 민주형	670	3.35	.57	9.200***	1-3*** 2-3*
		2. 권위주의형	75	3.24	.62		
		3. 무관심형	36	2.90	.75		
		4. 기타	60	3.16	.50		
	과제 난이도	1. 민주형	670	2.82	.70	.656	
		2. 권위주의형	75	2.83	.76		
		3. 무관심형	36	2.67	.76		
		4. 기타	60	2.75	.81		
전체	1. 민주형	670	3.24	.50	6.551***	1-3**	
	2. 권위주의형	75	3.12	.60			
	3. 무관심형	36	2.93	.54			
	4. 기타	60	3.07	.53			

* : p<.05, ** : p<.01, *** : p<.001

분석 결과, 집안분위기가 민주형인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고 무관심형인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은 민주형이 가장 높고, 과제난이도는

권위주의형이 가장 높았다. 반면 자신감은 권위주의형이,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는 무관심형이 가장 낮았다.

집안분위기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됨에 따라, 어떤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전체적으로는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난 민주형과 무관심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은 민주형과 무관심형, 권위주의형과 무관심형 간에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집안분위기에 따라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나며 민주형 집안분위기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무관심형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8) 학교급지에 따른 결과 분석

학교급지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비교해 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신감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학교 급지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자기 효능감	자신감	1. 가급지	291	3.26	.85	3.455*	2-3*
		2. 나급지	275	3.22	.84		
		3. 다급지	275	3.39	.70		
	자기조절 효능감	1. 가급지	291	3.36	.61	1.906	
		2. 나급지	275	3.27	.58		
		3. 다급지	275	3.29	.57		
	과제 난이도	1. 가급지	291	2.85	.72	.899	
		2. 나급지	275	2.77	.69		
		3. 다급지	275	2.81	.74		
전체		1. 가급지	291	3.23	.53	1.847	
		2. 나급지	275	3.15	.52		
		3. 다급지	275	3.22	.49		

* : p<.05, ** : p<.01, *** : p<.001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가급지의 학생이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급지, 나급지 순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다급지, 가급지, 나급지 순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는 가급지, 다급지, 나급지 순으로 나타나 전체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급지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p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자신감의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신감에서 어떤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나급지와 다급지 간의 p값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학교급지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감 요인에서는 다급지 학생이 나급지 학생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았다.

9)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결과 분석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 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기 효능감	자신감	남	245	3.26	0.79
		여	596	3.31	0.81
	자기조절 효능감	남	245	3.31	0.57
		여	596	3.31	0.59
	과제 난이도	남	245	2.84	0.72
		여	596	2.80	0.72
전체		남	245	3.20	0.48
		여	596	3.20	0.53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결과 여자가 담임교사인 학생과 남자가 담임교사인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같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은 여자가 담임교사인 학생이 높고, 과제난이도는 남자가 담임교사인 학생이 높게 나타났지만, t-검증 결과 p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결과 분석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비교해 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하위요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자기 효능감	자신감	5년 미만	147	3.34	.79
		5년 이상~10년 미만	159	3.26	.86
		10년 이상~20년 미만	124	3.36	.75
		20년 이상~30년 미만	411	3.27	.81
	자기조절 효능감	5년 미만	147	3.29	.60
		5년 이상~10년 미만	159	3.32	.67
		10년 이상~20년 미만	124	3.42	.55
		20년 이상~30년 미만	411	3.28	.55
	과제 난이도	5년 미만	147	2.81	.70
		5년 이상~10년 미만	159	2.78	.78
		10년 이상~20년 미만	124	2.93	.72
		20년 이상~30년 미만	411	2.79	.70
전체	5년 미만	147	3.20	.50	
	5년 이상~10년 미만	159	3.19	.60	
	10년 이상~20년 미만	124	3.30	.49	
	20년 이상~30년 미만	411	3.17	.49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분석 결과 담임교사가 10년 이상~20년미만인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고,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과제난이도는 10년 이상~20년미만, 5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효능감은 10년이상~20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5년미만, 20년

이상~30년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의 p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담임교사의 경력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분석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이라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상관분석은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얼마나 선형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를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상관 분석은 두 변수의 관계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상관계수)로 나타내어 두 변수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이용된다.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선형 관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선형관계가 약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려대상 변수가 3개 이상인 경우 두 변수들의 조합에 대한 상관계수 값을 구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를 행렬 형태로 정리하였다.

또한 두 변수의 선형 상관관계의 존재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 검증의 귀무가설은 ‘두 변수의 선형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그러므로 p값이 .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두변수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5>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요인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상관계수 행렬로 요인들 간의 관련 여부 및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5>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요인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요인 간의 상관계 분석

구분			학생의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상관계수	.043	.281***	.178***
	개별적 배려	상관계수	.052	.291***	.180***
	지적 자극	상관계수	.058	.314***	.190***
	결속 촉진	상관계수	.052	.310***	.189***

* : $p < .05$, ** : $p < .01$, *** : $p < .001$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으로 이루어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하위요인 4가지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로 구성된 학생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3가지 간의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하위요인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 등 4가지 요소 모두가 학생의 자기효능감 요인 중 자신감을 제외한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와 상관계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또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 중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하위요인인 지적 자극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양의 선형 관계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표 36>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학생의 자기효능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상관계수	.256***

* : $p < .05$, ** : $p < .01$, *** : $p < .001$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따라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학생의 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V.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담임교사의 리더십 개발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가?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내의 남녀공학 중학교를 가, 나, 다 급지별로 1개교씩, 총 3개 학교 학생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초기 배부한 900부 중 870부를 회수, 841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검사도구는 권인탁(1994)이 제작한 “변혁적 지도성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 TSLQ(Transformational School leadership Questionnaire)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했던 김경희(2007)와 한은미(2009)의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본 검사도구의 신뢰도계수는 .975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측정 설문지는 카리스마, 개인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의 자기효능감 측정 검사도구는 김아영(1996)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계수는 .886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측정 설문지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WI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t-검증, 분산분석, 샤페 검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개별적 배려와 결속 촉진 요인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적 자극, 카리스마 순이었다.

둘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생의 배경 변인은 학년, 집안분위기, 학교 급지, 담임교사의 성별, 교직 경력이고, 하위요인인 카리스마와 지적 자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주도 학습시간이었다. 변혁적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별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은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1학년과 2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요인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에서는 1학년과 2학년 간에, 결속 촉진에서는 1학년과 2학년, 2학년과 3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 분위기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은 기타, 민주형, 권위주의형, 무관심형 순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민주형과 무관심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하위요인 중 개별적 배려와 결속 촉진에서 민주형과 무관심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지별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은 나급지, 가급지, 다급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급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않았으나, 하위요인인 카리스마는 나급지와 가급지 간에, 개별적 배려와 결속 촉진은 나급지와 다급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성별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와 모든 하위요인별 비교에서 남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여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에 따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5년 이상~10년 미만’ 교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년 미만’ , ‘20년 이상~30년 미만’ , ‘10년 이상~20년 미만’ 의 순이었다.

또한 하위요인에서는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 등 모든 요인에서 ‘5년 이상~10년 미만’ 교사가 가장 높고, 지적 자극을 제외한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결속 촉진 요인에서는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담임교사 교직 경력 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적, 하위요인별 비교에서 ‘5년 이상~10년 미만’ 경력의 교사 집단과 기타 교사 집단 간의 변혁적 리더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제 난이도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넷째,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은 중학생의 배경 변인 중 성별, 성적, 자기주도 학습 시간, 교우관계, 부모와의 동거 여부, 집안분위기에서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년과 학교급지에서는 하위요인인 자신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체와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과제난이도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자기효능감은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요인 중 자신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적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살펴보면 ‘석차백분율 30%미만’ , ‘30%이상~70%미만’ , ‘70%이상’ 순으로 나타나 성적이 우수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적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30% 미만' 성적 집단과 '30 이상~70% 미만' 성적 집단 간, 그리고 '30% 미만' 성적 집단과 '70% 이상' 성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어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전혀 하지 않는다'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전혀 하지 않는다'와 '3시간 이상', '1시간 미만'과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시간 미만'과 '3시간 이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과제난이도 요인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전혀 하지 않는다'와 '3시간 이상', '1시간 미만'과 '3시간 이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우관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은 친구 수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전체와 하위요인 중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없다'와 '8명 이상', '1명'과 '8명 이상', '2~4명'과 '8명 이상', '5~7명'과 '8명 이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요인 중 자신감 요인에서는 '없다'와 '8명 이상', '1명'과 '8명 이상', '2~4명'과 '8명 이상' 사이에, 자기조절효능감에서는 '없다'와 '2~4명', '없다'와 '5~7명', '없다'와 '8명 이상', '1명'과 '8명 이상', '2~4명'과 '8명 이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기타', '부모와 함께 산다', '부모와 떨어져 산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 '어머니와 함께 산다' 순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 분석 결과는 전체와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어떤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부모와 함께 산다'고 응답한 학

생과 ‘어머니와 함께 산다’ 고 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안 분위기에 따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살펴보면 민주형, 권위주의형, 기타, 무관심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및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어떤 집안분위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민주형과 무관심형 사이에, 자기조절효능감 요인에서는 민주형과 무관심형, 그리고 권위주의형과 무관심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급지에 따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살펴보면 가급지, 다급지, 나급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지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요인인 자신감 요인에서 나급지와 다급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담임교사의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하위요인 4가지와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3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하위요인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결속 촉진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모든 하위요인들 간에 양의 선형 관계를 이루고 있어 학생이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생의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은 보통 이상이며, 배경 변인 중 학년, 집안 분위기, 학교급지, 담임교사의 성별, 담임교사의 교직 경력에 따라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이 가장 낮은 학생은 2학년, ‘무관심한 가정’ 학생으로, 이는 중학교 2학년이 성장과정의 사춘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 학생들의 반항적인 성향이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지각에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 학생과 무관심한 가정분위기에 속한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더불어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긍정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안·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남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여자 담임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다수의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교사수가 적고 여교사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교사의 성별 차이가 아닌 개인차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5년 이상~10년 미만 경력의 교사 집단이 가장 높은 변혁적 리더십을 나타냈는데, 이는 이 시기의 교사가 오랜 교직경력의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직경력이 짧은 교사에 비해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읽고 노련하게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을 익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수준은 보통 이상이며, 학생의 배경 변인 중 성별, 성적, 자기주도 학습 시간, 교우관계, 부모와의 동거 여부, 집안분위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생의 배경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자기주도 학습시간이 긴 학생, 친구 수가 많은 학생,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 집안 분위기가 민주적인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친구가 없는 경우와 어머니와 거주하는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폭행을 당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로서 이들 학생에 대한 개별적 관심과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혼 가정의 증가로 어머니와 거주하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학생의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연구분석 및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 효능감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노력은 물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지원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학생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교사가 학생에 대한 개별적 배려를 통해 학생의 성취 욕구와 지적 능력을 자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신장되어 21세기에 필요한 창의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가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과정과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분석이 학생의 지각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설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학생의 지각과 교사의 지각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6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의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담임교사와 학생이 보다 친밀한 관계형성이 된 학년 말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설문대상 교사 수, 남녀구성비, 연령, 경력 등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학생의 배경 변인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미선(2009),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혜미(2009), 대학생의 유머감각과 유머스타일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권인탁(1994), 교육조직에서 변화지향적 지도성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김경희(2007),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급풍토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래(2006),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급집단응집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 김미화(2003),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급조직 효과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 김선아(2010), 읽기 활동을 통합한 자기조절 쓰기전략 교수가 읽기, 쓰기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아영, 차정은(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영식(2008),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중학생의 지각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옥(2008),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이 학급풍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애(2008),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신뢰가 창의성, 진로의식성숙,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순(2009), 초등학생이 인식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급풍토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창걸(1994), 교육행정학 신문, 서울: 형설출판사.
- 김창걸(1999),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과 귀인과의 관계연구, 교육행정학 연

- 구, 17(2).
- 노종희(1996), 교육제도론,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
- 박정선(2007),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리더십과 학급조직 효과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창건(2011),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이 초등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호순(2002),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생의 학습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상곤(2007), 자기성장 집단 상담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계화(2004),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 성취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성철(2009),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직무몰입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우지현(2006), 담임교사의 리더십 유형이 학생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남희(2007), 중학생들의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돈희(1998),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서울: 현대문학.
- 이문환(2005), 담임교사의 변혁 지도성과 학급조직건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병진(2003), 교육리더십, 서울: 문음사.
- 이정민(2011),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민(2008), 담임교사의 사회적 지지도와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한검(1994), 인간행동론, 서울: 형설출판사.
- 임임선(2010),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생의 학습의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평호(1998), 학교장의 지도성, 의사결정의 질 결정요인 및 조직효과성간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주동진(2011),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인순(2006),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만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채은아(2007), 초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리더십 유형과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정희(2004), 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 참여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은미(2009), 고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설문지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설문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쁜 학교생활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정성껏 답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설문은 담임선생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알아보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수업이나 기타 학교생활 중에 드는 느낌이나 생각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성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문제를 잘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한국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 평 옥

※ 다음은 여러분 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해주세요.

1. 성별 : ___① 남 ___② 여

2. 학년 : ___① 1학년 ___② 2학년 ___③ 3학년

3. 학급에서 나의 성적은?

- ___① 석차 백분율 30% 미만 ___② 석차 백분율 30 이상~70% 미만
___③ 석차 백분율 70% 이상

4. 하루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 ___① 전혀 하지 않는다 ___② 1시간 미만 ___③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___④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___⑤ 3시간 이상

5. 비밀 이야기를 나눌만한 친구가 몇 명 있나요?

- ___① 없다 ___② 1명 ___③ 2~4명 ___④ 5~7명 ___⑤ 8명 이상

6.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 ___① 부모님과 함께 산다 ___② 아버지와 함께 산다
___③ 어머니와 함께 산다 ___④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한다 ___⑤ 기타

7. 집안 분위기는?

- ___① 민주형 ___② 권위주의형 ___③ 무관심형 ___④ 기타

※ 다음은 여러분의 현재 담임선생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 해주세요.

1. 담임선생님의 성별 : ___① 남 ___② 여

2. 담임선생님의 교직 경력 :

- ___① 5년 미만 ___② 5년 이상~10년 미만 ___③ 10년 이상~20년 미만
___④ 20년 이상~30년 미만 ___⑤ 30년 이상

중학교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문지

♠ 다음은 현재 담임선생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는 행동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바에 따라 담임선생님의 지도 모습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느낀 것에 가장 가까운 한 곳에만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 항	①	②	③	④	⑤
	우리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담임선생님은 훌륭한 모습이 많아서 따르고 본받고 싶다.					
2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다.					
3	우리 담임선생님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들과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다.					
4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가 서로 협동하도록 만드신다.					
5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 스스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다.					
6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들이 필요할 때 상담도 해 주시고, 방과 후의 생활에도 관심을 가지신다.					
7	우리 담임선생님은 알맞은 이유를 들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말할 것을 원하신다.					
8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 반의 일들을 우리들과 함께 의논하신다.					
9	우리 담임선생님의 반이 되어 공부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10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바로 도와주신다.					
11	우리 담임선생님은 어떤 문제들에 관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제안하신다.					

12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들과 협동하여 학급 목표를 정하신다.					
13	우리 담임선생님과 함께라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14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생 개인의 재능을 살려주시고, 부족한 면을 보충해주시다.					
15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신다.					
16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들과 힘을 모아 학급 일을 하고자 하신다.					
17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가 학교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18	우리 담임선생님은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에게 알기 쉽게 다시 설명을 해주신다.					
19	우리 담임선생님은 어려운 일을 할 때, 이미 배운 것(아는 것)을 이용해서 해결하게 하신다.					
20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적절한 권한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21	우리 담임선생님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신다.					
22	우리 담임선생님은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신다.					
23	우리 담임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 행동할 것을 강조하신다.					
24	우리 담임선생님은 학급활동이나 모듬활동 등에서 우리 모두가 협의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25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다.					
26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가 잘 했을 때는 칭찬을, 혹시 실수했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격려해 주신다.					

27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들의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말씀을 자주 해주신다.					
28	우리 담임선생님은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 주신다.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설문지

♣ 다음은 학생이 자신에게 느끼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내용을 읽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지”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 를 판단하여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한 곳에만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평소 나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가...					
1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낀다.					
2	나는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4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5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6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7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8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9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10	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이상으로 받는다.					

11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2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13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14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5	나는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17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18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내게 재미나는 일이다.					
19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20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21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2	나는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23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24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